

종교교육학연구 제48권. pp.37-5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7. 30.

통일교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

이 재 일

선문대학교

〈요 약〉

이 글은 통일교 종교교육의 이상과 현실을 서술하고, 과거의 개척기 종교교육을 진단한 후, 미래의 정착기 종교교육을 전망한 것이다. 통일교의 신학은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이상주의 신학이고, 통일교의 교육론은 이상적 인간상을 지향한다. 통일교의 아동과 청소년 종교교육은 초기에는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통일교의 색채를 갖추어갔다. 성인 종교교육은 교리강습의 수련회 위주였는데, 점차 체계화되었고, 교역자 양성교육이 분화되면서 신학교육으로 발전하였다. 성인 종교교육은 종말론적 분위기에서 인간성 함양 교육이 되지 못하였다. 통일교의 종교교육은 타락성의 청산과 본성의 계발이라는 두 과제를 지닌다. 통일교의 교육론에서 교육의 3형태는 각각의 개념이 지닌 의미 규정이 협소하여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므로, 각각의 의미를 탐구하여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재개념화의 결과, 제1축복 개체완성을 위한 교육을 심정교육, 본성교육, 영성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제2축복 가정완성을 위한 교육을 규범교육과 순결교육 및 효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제3축복 주관성 완성을 위한 교육에는 기존의 주관교육에 생태교육을 추가하여 재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핵심주제어: 심정교육, 본성교육, 영성교육, 순결교육, 효교육, 생태교육

I. 서론

한국종교교육학회는 2015년도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를 기념하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대 주제를 내걸고, 20년 동안의 학회활동을 회고하고 종교교육 분야에서 미래의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회는 한국사회가 가치관의 혼돈과 급격한 경제발전 속에서 정신적 가치에 근거한 가치관 교육에 집

중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물질만능과 성공주의가 만연하였다고 진단하였다. 그래서 종교교육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회의 취지에 맞춰, 필자는 이 글에서 통일교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논의하고자 한다. 비전이란 ‘내다보이는 미래의 상황’을 뜻하므로 곧, 미래적 전망을 말하는 것이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에 있다. 종교교육의 비전을 말한다는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종교교육을 전망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과거의 종교교육과 현재의 교회 상황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교는 지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1954년에 시작된 통일교는 60년의 역사를 지닌 교단이다. 통일교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교회활동이 이전의 대형집회보다 개별 교회를 중심한 예배와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또한 교단 형성에 참여했던 1세대가 교회를 지도하던 시대에서 이제 그들의 자녀인 2세대가 교회를 지도하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를 개척기에서 정착기로 전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의 개척기에는 통일교가 『원리강론』¹⁾에 담긴 기본이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통일교는 3대 경전을 편찬하고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행정체제 개편의 초석을 놓았다. 이로써 통일교는 점차 3대 경전과 헌법에 근거한 운영체제로 나아갈 것이다.²⁾

이 글에서 필자는 먼저 통일교 종교교육의 과거를 서술하고자 한다. 개척기를 지나 정착기로 진입하고 있는 통일교이므로, 과거 개척기의 종교교육을 진단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통일교 종교교육의 미래적 전망을 시도하려 한다. 앞으로 전개될 정착기의 종교교육을 내다보고 그 방향성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Ⅱ. 통일교 종교교육의 이상과 현실

1. 통일교 종교교육의 이상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섭리를 기록한 것이다. 성경에는 창조, 타락, 구원을 둘러싼 사건을 통해 인류가 깨우쳐야 할 지혜가 담겨있다. 통일교는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여 왔다. 『원리강론』은 성경의 역

1)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서울: 성화출판사, 1995).

2) 이러한 전환기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조 카리스마의 소멸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이는 제도와 조직에 의한 교단운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사 중심의 교단운영 문제가 있는데, 이는 개교회의 내실을 다지는 운영으로 나아가야 해결될 것이다. 강돈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현재와 미래」, 고건호 엮음, 『포스트 문 시대의 통일교회』(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4), 237-238쪽.

사를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하되, 구원이란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곧 ‘복귀’라고 설명한다.³⁾ 통일교는 오늘의 시대가 하나님이 복귀섭리를 완결하여 지상천국을 창건할 수 있는 인류문명의 대전환기라고 여긴다.

이러한 면에서 통일교의 신학은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를 지향한다. 그래서 통일교의 신학을 이상세계의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⁴⁾ 역사상에는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유토피아 주의자들이 다수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악을 근절하고 고난을 극복한 행복의 세상을 꿈꾸었다. 통일교의 이상세계도 이러한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이상세계로의 복귀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여야 가능하다. 그것은 곧,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결부되어야 하고, 인간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에 순응해야 되고, 인간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화해”된 경지를 말한다.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전체적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때가 되어야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로 복귀된 상태라고 할 것이다.⁵⁾

이상세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창조본연의 인간이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은 종교와 종교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다. 특정 종단의 종교교육은 그 종단의 이념을 반영한다. 통일교의 종교교육도 그렇다. 『원리강론』에 담겨있는 통일교의 근본이념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책임분담, 인간의 타락과 범죄,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통일교의 특색이 드러나는 ‘창조원리’는 하나님의 실존성, 신인협동, 가정의 중요성, 영계와 지상계의 두 세계를 설명한다.⁶⁾

이러한 통일교의 이념을 근거로 하여 통일교의 교육론이 체계화되었다. 통일교 교육론은 『통일사상요강』의 교육론에 기술되어 있다.⁷⁾ 이 교육론은 『성경』의 ‘창세기’ 1장 27-28절을 새롭게 해석하여 교육학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3대 축복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말한다. 그러므로 통일교의 교육론은 3대 축복 개념을 기반으로 교육의 이념과 형태 그리고 교육적 인간상을 체계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교의 교육론은 개체완성·가정완성·주관성 완성을 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심정교육·규범교육·주관교육을 교육의 형태로 하여, 인격자·선민·천재를 교육적 인간상으로 하는 교육이론이다. 이는 통일교의 교육적 이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일교 종교교육의 과거와 현실

지난 60년 동안 통일교의 종교교육은 교회의 현실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통일교의 종교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의 종교교육, 성인의 종교교육, 교역자 양성교육으로 나눌 수

3)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앞의 책, 참조.

4) 김영운, 『현대신학』(서울: 주류, 1983), 293-311쪽.

5) 위의 책, 310-311쪽.

6) 김영운, 『통일신학』(서울: 성화사, 1981), 63-106쪽.

7)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서울: 성화출판사, 1993), 343-388쪽.

있다. 여기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종교교육 그리고 성인의 종교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교단이 창립된 초기에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통일교회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들은 기독교에서 배우고 실시하던 방식으로 통일교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교육을 시작하였다. 통일교 초기의 아동과 청소년 종교교육은 기독교의 종교교육을 모델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복귀되어 교회의 활동에 참여했으므로 자연히 교회교육도 기독교의 형식을 따르게 되었다. 이 때에는 하늘의 운세와 신령한 역사가 교회 식구들의 활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각자 교회교육을 위해 연습하고 준비할 겨를이 없이 기성 교회의 교회교육을 따라서 실시하는 정도였다.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통일운동을 이끌어 가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⁸⁾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일교의 종교교육은 점차 새로운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창건, 참부모와 축복가정 공동체, 교회의 의례와 역사 등 통일교에 대해 비중을 두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교육을 위해 개발한 교재에서 잘 드러난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아동부 성화공과』와 『중고등부 성화공과』가 발간되었고, 교사용 지도서도 나타났다.⁹⁾ 이어서 1980년대 후반에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로 구분하여 교재가 간행되었다.¹⁰⁾ 이러한 교재는 모두 통일교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교육은 교리를 강습하는 수련회 위주의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 창립 초기의 교회활동은 교회의 개척에 집중하였다. 당시는 통일교가 전국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 온 힘을 투입했던 시대였다. 수련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신령역사에 취하고 감동하여 교회 개척의 길로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개척기에는 힘겨운 노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지닌 사람이 되는 공부를 할 여유가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본성을 계발할 시간과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창조본연의 인간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지내왔다.¹¹⁾ 그런데다가 종말론적 공동체의 특성이 강했고 구원섭리의 시대적 긴박성이 강조되면서 교회활동은 단기적 노력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에 치중하였다. 교회가 장

8)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5), 23쪽.

9)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아동부 성화공과』(서울: 성화사, 197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중고등부 성화공과』(서울: 성화사, 1978);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성화학생 지도방안』(서울: 성화사, 1979).

10)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교육부, 『유년부 성화공과 제1권 하나님의 나라』(서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교육부, 198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교육부, 『초등부 성화공과 제1권 하나님의 나라』(서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교육부, 198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교육부, 『중등부 성화공과 제1권 하나님의 나라』(서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교육부, 198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교육부, 『고등부 성화공과 제1권 하나님의 나라』(서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교육부, 198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교육부, 『구역예배교본 (1) 천국을 창건하는 우리들의 삶』(서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교육부, 1986).

11) 이재석, 「정착시대와 교육개혁」, 『통일세계』 523권, 2015. 2: 68, 70-71쪽.

기적 계획을 세운 가운데 종교교육을 추진하지 못했다. 당시의 종교교육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시작한 교육이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성인 대상의 종교교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비되어갔다. 수도권에 종교교육을 위한 수련소를 마련하고 1박2일 주말수련회와 7일 수련회의 단기교육 그리고 21일 수련회와 40일 수련회의 장기교육을 실시하면서 종교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더불어 평신도 교육과 교역자 교육이 분화되어, 1970년대 초에는 교역자 교육이 신학교의 교육으로 발전하였다.

개척시대 통일교의 종교교육은 교육 이념에 근거한 이상과 실제 상황에 근거한 현실 사이에서 조화롭지 못했다. 이상보다 현실 상황에 이끌려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념적으로 통일교의 종교교육은 하나님이 부여한 3대 축복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 근거를 지녔으나, 실제적으로는 현실 조건에 휘둘려 임기응변적 실천으로 나아갔었다.¹²⁾ 3대 축복 실현을 위한 심정교육, 규범교육, 주관교육이라는 교육 형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실제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새로운 종교가 형성되는 초기의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시대적 한계와 함께 전문적 교육을 받은 교사의 부족과 교재의 미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Ⅲ. 통일교 종교교육의 전망

1. 통일교 종교교육의 과제

교육은 학습자를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통일교는 인간을 창조, 타락, 복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통일교의 인간이해란 이러한 3 관점을 인간이해에 적용한 것이다. 그것은 곧 인간을 본성적 인간, 타락한 인간, 복귀과정의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¹³⁾

본성적 인간이란 창조본연의 인간을 말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성을 지닌 개성진리체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러한 인간은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면서 본성을 계발해가는 존재이다. 즉, 본성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하는 존재이고 자신을 창조해가는 창조적 존재이다.

그런데 인류 시조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타락한 후손 곧, 죄인이 되었다.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과 부모-자녀의 관계를 상실하였고, 부모인 하나님의 심정에 무지하다. 또한

12)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 23쪽.

13)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참조.

형제자매인 인류의 사정에도 무감각하다. 이러한 인간은 사랑과 행복의 세계에서 사는 천국인이 아니라 미움과 고통의 세계에서 사는 지옥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타락성을 지닌 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타락성을 청산해야 한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따라 타락성을 청산하고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섭리는 인간을 창조본연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므로 복귀섭리이다. 복귀섭리의 역사를 통하여 살펴볼 때, 복귀과정에 있는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 이전의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통일교는 인간을 창조본연의 인간, 타락한 인간, 복귀과정의 인간으로 구분하여 이해한다. 하지만 이는 이해를 위한 구분일 뿐이다. 현실의 인간에게는 이 3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현실의 인간이란 본성이 타락성에 갇혀 있지만 복귀섭리에 의해 점진적으로 타락성을 벗고 본성을 계발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일교의 교육론은 『원리강론』의 ‘창조원리’가 설명하는 창조본연의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성의 계발을 위한 교육적 처방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원리강론』의 ‘타락론’이 설명하는 타락성을 청산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서술이 생략되어 있다.¹⁴⁾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타락성은 본성의 발현을 가로막는다. 본성이 발현되도록 하려면 일상의 삶에서 타락성을 청산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교의 종교교육은 타락성의 청산과 본성의 계발이라는 두 과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종교교육의 과정도 타락성 청산을 위한 복귀의 길과 본성 계발을 위한 원리의 길을 거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¹⁵⁾ 통일교 종교교육은 타락성을 근절하는 교육과 창조 본성을 계발하는 교육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신앙생활과 종교교육의 실제에서는 두 측면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인간의 삶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어른으로 성숙하여 나아가는 성장과 발달의 과정이다.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교육적 요인이 개입한다. 교육이란 인간을 배움과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인간 특유의 활동이다. 통일교는 인간의 성장에는 인간 각자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다.

만물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 의하여 성장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그러나 인간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이나 자율성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책임분담을 다하면서 이 기간을 경과하여 완성하도록 창조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완성 여부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책임수행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¹⁶⁾

통일교의 관점에서 종교교육이란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분담을 하면서 성장기간을 거쳐 완성해가도록 돕는 활동이다. 통일교는 인간이 성장과정을 거쳐 완성되어야 자신의 존

14)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 172쪽.

15) 이재일, 「통일교 교육론의 성찰과 유교」, 『종교교육학연구』 44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82쪽.

16) 위의 책, 59쪽.

재목적을 실현할 수 있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타락성을 청산하는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종교교육은 타락성 청산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은 구원을 위한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¹⁷⁾ 이러한 면에서 종교교육이란 하나님의 인류 구원섭리와 창조본연의 이상 세계 창건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다.

2. 통일교 교육론의 재개념화

교육이란 인간이 성장하도록 돕는 행동이다. 통일교의 교육론은 인간의 성장을 3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그 요점은 3대 축복 개념을 기반으로 교육의 이념과 형태 그리고 교육적 인간상을 체계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교의 교육론은 개체완성·가정완성·주관성 완성을 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심정교육·규범교육·주관교육을 교육의 형태로 하여, 인격자·선민·천재를 교육적 인간상으로 하는 교육이론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¹⁸⁾

〈표 1〉 통일 교육론의 요점

통일 교육론의 기초	상사성의 창조 (창1: 27)		
	3대축복 (창1: 28)		
	생육: 제1축복	번식: 제2축복	주관: 제3축복
교육의 이념	개체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
교육의 형태	심정교육	규범교육	주관교육 - 지식교육, 기술교육, 체육
이상적 인간상	인격자	선민	천재

통일교의 교육론에서 교육의 3형태란 제1축복 개체완성을 위한 교육인 심정교육, 제2축복 가정완성을 위한 교육인 규범교육, 제3축복 주관성 완성을 위한 교육인 주관교육을 말한다. 그런데 각각의 개념이 지닌 의미 규정이 협소하여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¹⁹⁾ 이에 대해 그 의미를 좀 더 깊고 넓게 탐구하여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1축복 개체완성을 위한 교육을 다시 생각해 보자. 통일사상에는 이를 심정교육으로 명명한다. 심정교육이란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게 하는 교육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는다는 것은 인간에게서 영혼의 생심(生心)과 육신의 육심(肉心)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맺고 하나 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곧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하는 생

17) 이재영, 「통일교의 욕망이해와 욕망 다스림」, 『종교교육학연구』 31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46쪽.

18)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교본』(서울: 통일사상연구원 출판부, 1994), 163쪽.

19) 이재일, 『통일교의 종교교육론 연구』(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13), 190-191, 197-199쪽.

심이 주체가 되고, 의식주와 성(性)의 활동을 추구하는 욕심이 대상이 되어 일체되는 것이다.²⁰⁾ 이를 위한 교육이란 인간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에 일치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창조본연의 성품인 본성을 함양하는 본성교육이 된다. 또한 개체완성을 위한 교육은 무형의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는 영성적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다. 곧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부여된 영성의 계발을 위한 영성교육이 된다.²¹⁾ 그러므로 심정교육, 본성교육, 영성교육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2축복 가정완성을 위한 교육을 다시 생각해 보자. 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양·음의 조화를 닮을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서 본연의 부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²²⁾ 또한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교육이고, 남편이나 아내의 도리를 몸에 익히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리고 부모나 자녀의 본연적 자세 그리고 형제자매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²³⁾ 이러한 교육은 오늘의 도덕교육이나 윤리교육에 가깝다.²⁴⁾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도덕·윤리교육 또는 가정생활을 위한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정완성을 위한 교육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성의 신성성, 신비성에 대하여 가르치는 일”²⁵⁾이므로 이는 순결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생활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해야 할 도리인 효가 중요하므로 가정생활을 위한 교육은 효교육으로 시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축복 주관성 완성을 위한 교육을 다시 생각해 보자. 주관이란 사전적으로는 ‘주인이나 주체가 되어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통일교는 주관이란 말을 인간 주체가 대상인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이해한다. 주관성 완성을 위해서는 지식교육과 기술교육 및 체육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관의 대상에 대한 정보인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대상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다스림의 주체인 인간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이다.²⁶⁾ 그런데 인류는 인간의 편리와 쾌락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만물을 이기적으로 이용하여왔다.

이제 인류는 인문학적 감성을 갖추고 자연만물과 공생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자연만물에 대한 가치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식이 요구된다. 자연만물을 사랑하려면 만물에 대한 주관성 완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주관교육은 지식교육, 기술교육, 체육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연만물과 공감할 수 있는

20)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347쪽.

21) 이재일, 『통일교의 종교교육론 연구』, 191쪽.

22)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364.

23) 위의 책, 365쪽.

24) 이재일, 『통일교의 종교교육론 연구』, 198쪽.

25) 위의 책, 365.

26)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367.

감성을 키우는 교육, 나아가 인간과 자연 및 환경이 상호의존적인 유기체라는 관점에서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생태교육으로 초점을 맞춰 생각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통일 교육론의 요점: 재개념화

통일 교육론의 기초	상사성의 창조 (창1: 27)		
	3대축복 (창1: 28)		
	생육: 제1축복	번식: 제2축복	주관: 제3축복
교육의 이념	개체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
교육의 형태	심정교육, 본성교육, 영성교육	규범교육, 순결교육, 효교육	주관교육 - 지식교육, 기술교육, 체육, 생태교육
이상적 인간상	인격자	선민	천재

3. 정착기 통일교 종교교육의 전망

통일교의 역사에서 지금은 개척기가 지나가고 정착기가 시작되는 전환기이다.²⁷⁾ 정착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미래 통일교의 종교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개척기의 종교교육은 『원리강론』을 중심으로 하는 교리강습 위주의 수련회로서 통일교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통일교가 지향하는 수준에 적합한 교인의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²⁸⁾ 정착기의 종교교육은 이미 개척해 놓은 통일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축복가정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구현하는 삶과 직결되는 교육이다. 또한 이는 타락한 인류의 문명을 하나님을 중심한 문명으로 혁신해 나아가기 위한 교육이다. 이러한 미래의 통일교 종교교육을 위에서 새롭게 개념화한 교육형태를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자.

첫째, 정착기의 개체완성을 위한 종교교육은 통일교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을 위한 심정교육, 본성교육, 영성교육이어야 한다. 통일교는 하나님을 부모로 여기고 부모인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되고자 한다. 그러므로 정착기 종교교육은 무엇보다도 심정교육이어야 한다. 심정이란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다. 심정은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동기이고, 인간에게는 삶의 원동력이다.²⁹⁾ 시조의 타락으로 인류는 심정의 공감력을 상실했으나 복귀섭리가 진전됨에 따라 이를 회복해왔다.

통일교는 하나님을 슬픔과 한(恨)의 심정을 지닌 존재로 설명한다. 복귀섭리의 길에서

27) 이재석, 앞의 글, 참조.

28) 강돈구, 앞의 글, 215-238쪽.

29)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58-63쪽.

는 대가를 치르며 탕감의 과정을 거쳐야 복귀되고, 타락한 악의 세력에게 고난을 당하며 선을 찾아가야한다. 그러한 고난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고난임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알고 느껴가는 것이 복귀의 길이다.³⁰⁾ 심정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식구 사이에 사정이 통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며 심정을 체험할 수 있다. 3세대 구성원으로 결합된 가정에서 상대의 사정을 알고 심정을 체험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점차로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개체완성을 위한 정착기 종교교육은 본성교육이어야 한다. 본성교육은 창조본연의 성품을 계발하는 교육이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하며 서로 위하고 사랑하여 기쁨을 누리하고자 한다. 하지만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생긴 타락성이 본성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인류는 복귀섭리의 진전에 따라 타락성을 청산하고 본성을 계발할 때를 맞이했다. 인류는 이제 본연의 심정과 가치, 본심의 자유와 본성의 사람을 복귀해가고 있다.³¹⁾ 정착기에는 개인이 성장하고 완성해가는 길을 밟아나가야 한다. 개체완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신앙인으로서의 성품을 개발해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과 인격의 기본을 갖추고 살아가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창조본연의 본성을 계발하며 살아갈 때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개체완성을 위한 정착기 종교교육은 영성교육이어야 한다. 영성이라는 말은 통일교에서 사용하는 심정과 흡사한 개념이다. 심정은 체험을 전제한 개념이다. 심정으로 영성을 조명할 때 영성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영성을 계발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심정적 관계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³²⁾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곧 영성이다. 신앙생활이란 타락하여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고 하나님과 신비스러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한다.³³⁾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려면 영성을 계발해야 한다. 영성계발이란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을 좀 더 강렬하게 체험할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어 영성의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영성의 계발을 위한 훈련은 반복적으로, 장기간, 정성을 다하여 실천하여야 한다.³⁴⁾

둘째, 정착기의 가정완성을 위한 종교교육은 규범교육, 순결교육, 효교육이어야 한다.

30)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뜻길』(서울: 성화사, 1991), 37쪽.

31)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132-134쪽.

32) 이재영, 「통일교 수행방법과 영성계발」, 『종교교육학연구』 28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44쪽.

33) 이재석, 앞의 글, 73-74쪽.

34) 위의 글, 74-75쪽.

가정에서의 규범교육은 도덕·윤리교육으로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도록 안내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을 중심한 교육은 순결교육과 효교육이 중요하다.

통일교는 인간 시조가 잘못된 사랑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났으므로 인류는 이 불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순결한 삶과 순결교육에 있다고 본다. 순결이란 남녀를 불문하고 미혼자뿐만 아니라 기혼자도 지켜야 할 성적 정절이며, 나아가 모든 삶에서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순결하게 산다는 것은 결혼 전에는 성적으로 금욕하고 결혼 후에는 외도를 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³⁵⁾ 오늘날에는 성의 규범과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개인주의적 삶과 자유주의적 태도의 확대 그리고 가족제도의 약화 또한 성에 대한 쾌락주의적 이해 등에 기인한다. 현대인의 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조주의 창조목적과 인간의 존재목적에 부합하는 성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가르치는 순결교육이 필요하다. 통일교는 남녀 간의 성이란 결혼으로 특별한 인연을 맺은 부부에게 허용될 때 순결한 성으로 승화되며 이로써 참사랑이 실천된다고 본다.

통일교는 하나님을 중심한 ‘합동축복결혼식’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결혼양식을 알려왔다. 통일교가 추진해온 이러한 결혼양식은 종족 재생산이라는 결혼의 생물학적 목적과 가족제도의 보호와 안정이라는 사회학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육체적 매력이나 성적 충동에 근거한 현대의 결혼에 도전한다. 또한 통일교의 결혼양식은 결혼의 종교적인 측면을 되살렸다. 하나님을 모신 결혼식을 통해 결혼을 거룩한 혼례로 승화하였고, 이로써 성윤리의 문란으로 인한 개인적 비극과 사회적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³⁶⁾

통일교는 가정을 중시한다. 가정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훈련소이다. 가정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교육은 효의 실천을 위한 교육에서 시작해야 한다. 유교는 효를 모든 행실의 근본 도리로 여긴다. 효란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도리이다. 부모를 위하는 효의 가치를 중시하는 통일교는 효를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리라고 이해한다.

인간(人間)이라는 한자가 보여주듯이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인간의 본질을 인(仁)이라고 여기는 유교는 인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유교는 인이란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몸을 버리고 이루는 것이라고 본다.³⁷⁾ 유교는 인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효를 말한다. 효가 인을 이루

35) 이재일·문선애, 「성과 사랑에 대한 통일교의 이해」, 『종교교육학연구』 4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53-54쪽.

36) 김영운, 앞의 책, 308쪽.

37) 이계학, 『인격교육론』(서울: 성원사, 1991), 90-92쪽; 『맹자』 公孫丑, 惻隱之心仁之端也; 『논어』 顏淵, 樊遲問仁 子曰愛人; 『논어』 顏淵, 克己復禮爲仁; 『논어』 衛靈公, 子曰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어가는 근본이며, 덕의 근본이고 가르침이 나타나는 근본이라고 본다.³⁸⁾

통일교는 유교의 이러한 관점에 동의한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부부관계를 바르게 맺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이 중요한데, 그 출발이 바로 효교육이라고 본다. 그리고 가정에서 효도할 줄 알아야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위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정착기의 주관성 완성을 위한 종교교육은 만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만물에 대한 인간의 주관성은 내적 주관성과 외적 주관성으로 구분된다. 내적 주관성이란 심정적 주관성을 말한다. 인간이 개체를 완성하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만물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할 수 없게 되었고 만물에 대한 심정적 주관자가 되지 못 하였다. 하지만 복귀섭리에 따라 오늘날에는 심정적 주관자의 자격을 복귀해가고 있다. 외적 주관성이란 과학에 의한 주관성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과학의 발달로 만물에 대한 외적인 주관성을 최고도로 복귀해왔다.³⁹⁾ 하지만 근대의 과학적 세계관은 우주와 자연을 개발과 이용 및 정복의 대상으로 여길 뿐, 자연만물과 교감하고 공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구문명은 자원고갈, 환경오염,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통일교는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본다. 그리고 인간은 만물과 소통할 수 있고, 인간과 자연은 공생하는 관계에 있어야 정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면에서 인간은 자연만물에 대한 감각과 감수성을 계발할 필요가 있다. 자연에 깃든 생명을 느끼고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이라야 자연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축복을 실현하려는 주관성 완성을 위한 종교교육은 생태적 감성을 일깨우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세계종교의 오랜 역사에 비해 짧은 역사를 거쳐 온 통일교는 이제 개척의 시기를 지나 정착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정착기의 통일교는 과거에 개척해 놓은 교회 공동체의 기반에서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적 삶을 배우고 가르치며 이를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 종교교육의 이상은 『통일사상요강』의 ‘교육론’에 정리되어 있다. 그것은 3대 축복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교육의 이념과 형태 및 인간상으로 설명된다. 곧 교육이념으로는 개체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이고, 교육형태로는 심정교육, 규범교육, 주관교

38) 이계학, 앞의 책, 94-97쪽; 『논어』 學而,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효경』 開宗明義章, 子曰 夫孝德之本也 教之所由生也.

39)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139-140쪽.

육이며, 교육적 인간상으로는 인격자, 선민, 천재가 그것이다. 개척기 통일교 종교교육의 실체는 이러한 이상과 교회적 상황이라는 두 요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났는데, 점차 교재를 갖추고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그런데 통일교의 교육론에 서술된 교육의 3 형태는 그 의미 규정이 협소하여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1축복 실현을 위한 종교교육을 심정교육과 본성교육 및 영성교육으로, 제2축복 실현을 위한 종교교육을 규범교육과 순결교육 및 효교육으로, 제3축복 실현을 위한 종교교육인 주관교육에 생태교육을 추가하여 논의하였다. 통일교의 종교교육은 인간을 성숙시켜 지상에 천국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인간인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통일교의 종교교육은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을 계발하는 교육이고, 창조본연의 본성을 계발하는 교육이며, 3대 축복을 완성하기 위한 교육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논어』.
 『맹자』.
 『성경』.
 『효경』.
- 강돈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현재와 미래」, 고건호 엮음, 『포스트 문 시대의 통일교회』,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4.
- 김영운, 『통일신학』, 서울: 성화사, 1981.
- 김영운, 『현대신학』, 서울: 주류, 1983.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뜻길』, 서울: 성화사, 1991.
- _____, 『성화학생 지도방안』, 서울: 성화사, 1979.
- _____, 『아동부 성화공과』, 서울: 성화사, 1977.
- _____,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5.
- _____, 『중고등부 성화공과』, 서울: 성화사, 1978.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교육부, 『유년부 성화공과 제1권 하나님의 나라』, 서울: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교육부, 1986.
- _____, 『초등부 성화공과 제1권 하나님의 나라』, 서울: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교육부, 1986.
- _____, 『중등부 성화공과 제1권 하나님의 나라』, 서울: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교육부, 1986.
- _____, 『고등부 성화공과 제1권 하나님의 나라』, 서울: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교육부, 1986.
- _____, 『구역예배교본 (1) 천국을 창건하는 우리들의 삶』, 서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교육부, 1986.
- 이계학, 『인격교육론』, 서울: 성원사, 1991.
- 이재석, 「정착시대와 교육개혁」, 『통일세계』 523권, 2015. 2.
- 이재영, 「통일교 수행방법과 영성계발」, 『종교교육학연구』 28,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 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5.
- _____, 「통일교 교육론의 성찰과 유교」, 『종교교육학연구』 44,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 _____, 『통일교의 종교교육론 연구』, 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13.
- _____. 문선애, 「성과 사랑에 대한 통일교의 이해」, 『종교교육학연구』 42, 서울: 한국종교 교육학회, 2013.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교본』, 서울: 통일사상연구원 출판부, 1994.
- _____,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3.

원고접수일: 2015년 6월 8일 심사일: 2015년 6월 30일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8일

연구자소개: 이재일

① 전공: 교육학, 신학 / 소속: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인성교육, 개화기의 한국교육

③ 주요논저: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유길준의 종교관 변화과정과 교육개혁론」,
「성과 사랑에 대한 통일교의 이해」

④ E-mail: leejaeil21@hanmail.net

Abstract

A New Vision of Unificationist Religious Education

Lee, Jae-II

Sunmoon University

This article describes the ideal and reality of the Unificationist religious education, and diagnoses the religious education of the past pioneer period, and views the religious education of the future settled life period. Unification theology is an utopian theology which aims toward an ideal world. The theory of Unificationist Education aims toward an ideal human being. The early Unificationist religious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has been influenced by Protestantism. However, it gradually took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ficationism. The Unificationist religious education for adult was focused on the doctrine training class and therefore organized into short term course and long term courses gradually. Pastor training program was separated from it and developed into a theological education. The religious education for adult did not cultivate humanity in the eschatological atmosphere. Unificationist Religious Education has the dual challenges which are the development of original nature and the removal of fallen nature. Three forms of education in the educational theory of Unificationism is required to modify the narrow sense of each concep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ceptualize by exploring the meanings of the three forms. In this article, I understood an education for the first blessing into heart education, original nature education, spirituality education. I also understood an education for the second blessing into norm education, pure love education, filial piety education. And I added an ecological education to an education for the third blessing. And I explore the meaning of each.

Key words: heart education, original nature education, spirituality education, pure love education, filial piety education, ecological education